

종합소식

□ 保社部 食品衛生 法規위반 과징금 徵收 및 처벌강화 □

保健社會部는 금년상반기(6월말)까지 食品製造 및 加工業體와 接客業所에 食品衛生 관련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納付한 과징금은 지난해 4억5천7백23만 여원에 비해 2배 以上으로 늘어난 9억4천2백53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各市道別로 納付 現況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과징금의 52%인 4억5천1백95만 5천원, 대구직할시 9천1백여만원, 충청남이 7천2백50여만원, 경기도 6천6백92만 원 부산이 4천6백60여만원이다.

이같은 과징금지수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前年度 賣出額 基準 2,400만원 미만 업체는 1일 1만원, 5백 만원 이상 매출 업체는 1일 12만원 까지로 모두 1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과징금은 1천만 원 以上을 징수할 수 없도록 規程하고 있다.

保社部는 現행 과징금 制度를 食品振興基金의 效率의 運用을 爲해 金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運用 기간을 2~3년 延長토록 하는 방안을 計劃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8. 9월 立法 豫告한 食品衛生法 改正案에 依하면 지금까지 食品接客業所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을 때만 물려오던 과징금제 를 앞으로는 食品衛生 業所의 品目製造 정지에도 확대 適用하고 과징금 최고 限度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改正案은 이밖에 지금까지 食品衛生業所 和 食品接客業所에 만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해 왔으나 허가대상의 일부를 신고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같이 마련하는 等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 이시돌 치즈 市乳生産에 參與 □

이시돌 農村 産業開發協會(代表: 피재 맥크린치)는 지난 4월부터 約 3億원을 投資 市乳 工場을 建設中이며 올 年末까지 完工 目標로 세우고 進行中이다. 本 工場이 完工되면 1일 16톤 규모의 原乳를 生産處理할 수 있으며 89年度는 濟州道 內에 서만 本格的으로 販賣할 計劃으로 있다.

□ 파스퇴르 우유 國監에서 成進목장 准 設 시정지시 □

— 인근 住民 生活用水 피해 극심 —

지난 國會 國政監査에서 民主黨 朴奭秀 의원의 질의로 진상규명에 나선 강원도 횡성군 오원 저수지 준설건은 가해자 파스퇴르 우유 代表 崔明在씨 와 피해자 代表 柳貞熙氏의 一門一答이 있었다.

가해자인 성진목장대표 파스퇴르우유 최명재씨는 지난 81년 성진목장의 草地를 造成하여 현재 젖소 42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草地造成 과정에서 일부 山을 깎아 그 흙이 목장아래 오원 저수지에 流入돼 저수지가 50%정도 매몰되고 農水量 不足等 500여 農家의 72만평에 달하는 農地에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 농가의 진정에 따라 國政監査時 이를 보상토록 시정지시 하므로 공개 되었다.

이에 對해 파스퇴르 代表 崔明在氏는 成進牧場 초지조성시 토사 유입으로 저수지 50%가 매몰된 점은 인정하나 자신에게 100% 준설하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성 증언을 계속하다 吳漢九의원 등 4명의 議員으로 부터 위증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증인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 하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아무튼 崔氏는 法以前에 상식

을 무시한 억지에 명수라고나 할까?

□ 아산畜協 염치集乳場 竣工 □

아산畜協(조합장 : 조돈하)은 지난 11월 15일 아산군 염치면 방현리 259-5에 6億원을 投資하여 관내 유관 기관장을 비롯하여 任職員 및 組合員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염치 集乳場을 竣工하였다.

同 集乳場의 1일 처리능력은 150톤 규모이다. 한편 아산축협은 지난 10월말과 11월 4일 충북 음성 축협과 경기도 양주 축협 총대 및 직원들의 방문을 받고 集乳施設 및 事業推進 狀況等を 說明하기도 했다.

□ 第27回 國際 乳加工 세미나 開催 □

韓國乳加工 協會 後援 韓國乳加工 研究會 主催로 지난 10월 22일 貿易展示館 國際會議室에서 政府·學界, 乳加工業界 任職員 等 4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27回 國際 乳加工 세미나가 盛大히 開催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招聘된 日本東北大學 「이또」 교수는 主題 發表를 통해 牛乳를 殺菌할 경우 “라이신”의 감소율은 UHT方式의 경우에도 0.1~2%밖에 안된다고 밝히고 우유중의 단백질은 라이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감소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또 영국의 H. Burton 박사는 우유를 멸균하고 화학변화를 최소화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熱處理 溫度가 높을수록 좋다고 강조하고 일정한 멸균효과를 얻을때에 일어나는 化學 變化의 양은 100℃에서 보다 130℃에서 130배나 적고 150℃에서는 1천배나 적게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고있는 “가짜우유논쟁”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강의 내용과 장사는 다음과 같다.

- 우유의 UHT(멸균) 열처리와 우유의 품질 : 영국 H. Burton박사

- 가열처리가 우유의 영양에 미치는 영향 : 독일 E. Ronner박사
- 가열처리가 유단백질과 칼슘에 미치는 영향 : 日本, T. IToh 박사
- 원료우유의 미생물학적 유질조절의 문제 : 日本, IArai 박사
- 한국의 우유처리 온도와 시간의 실태조사 : 한국유가공협회 張聲鍾 常務理事

□ 파스퇴르 유업, 허위, 과장광고 시정 불이행으로 공정거래위에서 형사 告發 □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委에서는 파스퇴르 乳業(대표 : 최명재)이 IDF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최초탄생등의 허무맹랑한 허위 과장 및 비방과 대 광고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이행하고 허위, 과장 비방 광고를 繼續함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 파스퇴르유업 代理店 경영난 심각 □

- 상반기 보다 매출액 반으로 떨어져 -

최근 소식통에 依하면 파스퇴르 유업이 誇大, 誇張 선전으로 上半期에는 큰 幅으로 신장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부터 販賣高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파스퇴르 유업이 주장하는 유지방 함유율이 높다고 하는것은 저온 장시간 살균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세균수가 적다는 것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등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참고로 한 공동홍보의 내용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현명한 品目 選擇을 하는데 主 原因이라고 하였다.

□ 한·덴마크 유가공 전북공장 준공 □

한·덴마크 유가공(대표 : 닐스크리스찬 스티브)은 지난 11월 4일 라우리스 퇴네스 덴마크 농무장관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정읍 所在

原乳處理 施設을 포함한 乳加工工場 竣工式을 가졌다.

同 工場은 總 工事費 35억 여원을 投資하여 垜地 5천평 건평 5백평 규모로 지난해 10월에 착공 1일 2톤 규모의 施設을 竣工하였다.

또 同工場은 덴마크의 乳加工 技術을 導入하여 設立되었으며 현재 酪農家 103家口가 주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18%에 해당하는 지분이라고 한다. 이로써 同社는 본 공장 준공과 함께 자연치즈, 요구르트 유유등 乳製品에 對해 서울 및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市販에 들어갔다.

□ 서울우유 제3공장 전화신규 개설 □

서울우유 협동조합(조합장: 강성원)은 지난 9월 15일을 기해 제3공장 현장(안산)에 신규전화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 (0345) 491-3867~9
- (0345) 6-5463

□ 덴마크 낙농연합회장 來韓助言 □

지난 11월 2일 國內 乳業界 視察次 來韓한 덴마크 酪農聯合會 會長 토머스요건스氏는 덴마크는 이미 105년전에 集乳一元化를 完了하여 原乳의 수습조절로 酪農業이 安定的으로 發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集乳一元化가 關鍵이고 原乳生産과 酪農製品 需給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強調했다.

또 EC 國家들은 4년째 15%의 原乳를 減縮하고 있으나 타 農業國家들은 生産을 늘려 세계 유제품 재고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EC를 비롯한 구주, 호주, 뉴질랜드등 世界 酪農國들이 原乳生産을 위한 협정으로 원유 수급 조절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 韓國肉加工協會 '88肉加工세미나 開催 □

韓國肉加工協會(會長: 姜晋佑)는 지난 11월 15

일 韓國飼料協會 會議室에서 '88肉加工세미나를 開催했다.

本 세미나는 最近 대두되고 있는 肉製品 輸入과 그 對策等에 關하여 國內 畜産業의 향후 展望과 現안, 쇠고기의 等級制 및 豚肉 等級制에 對한 문제와 日本의 육류 및 肉加工의 輸入 現況, 國內의 肉加工輸入 실태 및 문제점을 比較과악하고 앞으로 肉加工業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키 위한 것으로 發表된 主題와 講師는 다음과 같다.

- 畜産展望과 牛肉等級制: 種畜改良協會 송찬원 회장
- 日本의 肉類, 肉加工 수입 現況과 우리나라의 육가공품 輸入 實態 및 問題點: 建國大學校 김언현 박사.

□ 酪農肉牛協會 第2回臨時 總會開催 □

酪農肉牛協會(會長: 池在先)는 지난 12월 2일 14:00부터 서울우유 協同組合 講堂에서 監事를 포함한 理事 30名이 參席한 가운데 '88 第2回 臨時 總會를 開催하고 새 會長에 황영구氏를 選任하고 그의 任員은 새회장이 選任토록 위임했으며 會議를 통해 現酪農家의 걱정소식을 보장하고 酪農生産 기반의 도산을 막기 위해 現行 原乳價 引上이 關切되도록 노력하는 等 案件을 單장一致로 議決하였다.

討議된 案件은 다음과 같다.

1. 現行 原乳價 引上 關切
2. 乳製品 輸入 開放 지지 건의
3. 임원 選任

□ 서울우유 치즈 製造 UF方法 導入 □

서울우유 협동조합(조합장: 康誠元)은 지난 12월 치즈의 품질과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초정밀 여과기(Ultrafiltration: UF)를 덴마크 APV PASI IAC社로부터 1대를 우선 도입 89년 3월부터 치즈 베이스를 본격 생산하게 된다.

한편 서울우유는 추후 6대를 구입할 計劃이며 同여과기는 치즈생산의 필요한 約 3個月의 숙성기

간을 거치지 않고 지방과 단백질을 고농축시킬 수 있어 품질향상은 물론 치즈 생산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斗山乳業 슬라이스치즈 生産 販賣 □

斗山乳業(代表: 남궁 혁)은 지난 5월부터 市乳 生産에 이어 지난 12월초 부터 슬라이스 치즈(체다 슬라이스치즈와 카레스라이스치즈)를 生産 市販에 나서므로서 서울우유 해태유업, 일심치즈, 삼양식품, 동양유업 이시돌치즈, 한·덴마크 유가공에 이어 8번째 치즈 생산 업체가 된다.

□ 파스퇴르우유 용량줄여 소비자 값 인상 □

최근 파스퇴르 유업(대표: 최명재)이 광고를 利用 “藥”인양 誤導하는 등 과대, 허위 광고를 일삼는가 하면 최근 자사 製品의 容器를 바꿔 용량을 줄였음에도 소비자 값은 그대로 유지, 사실상 값을 인상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다. 내용을 보면 1,000ml 製品을 980ml로 500ml를 490ml로 各各 바꾸고 容器도 바꾸었으나 값은 종전과 같이 받고 있어 사실상 값을 인상해 알뜰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다. 또한 製品 용기에 100% 충

진하므로 동사의 선전처럼 흔들어 마실수 없어 위에 지방구가 떠있는 製品을 먹을수 밖에 없다고 한다.

□ 韓國畜産經營學會 學術發表會 및 總會開催 □

韓國 畜産經營學會(會長: 柳濟昌)는 지난 12월 10일 建國大學校 本館 3층 소강당에서 同學會 會員 및 關聯業界人士와 學生들이 다수 參席한 가운데 學術 發表會를 가졌으며 同發表會에는 日本牛業大學의 清水陸房 博士가 特別 招請되어 日本에 있어서의 畜産 經營 진단의 전개와 진단 方法에 對해 熱講을 하였으며 이날 發表된 主題 및 講師는 다음과 같다.

- 韓國의 農畜産物 流通 정보망 발전에 관한 연구: 김병호 박사(건대교수)
- 日本에 있어서의 畜産 경영진단의 전개와 진단 方法: 시미즈 다카후사 박사
- 牛乳의 販賣의사 決定 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 박종수 박사(충남대 교수)
- 모피家畜(밍크, 여우)의 경영실태와 展望: 김언현박사(건대교수)
- 치즈 수입이 酪農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Simulation: 홍명수 박사(선비지네스 대표)

